

孝子·孝女傳에 있어서 孝의 精神分析

A Psychoanalytic Study on "Hsiao" (filiar piety) in Oriental Legends of Filiar Children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趙 斗 英

序 論

「무릇 孝는 德의 근본이다. 모든 가르침이 이에서 시작되는 것」(孝經, p. 25)이고 「효도와 형제애는 仁의 근본이 되는 것」(論語 學而篇 1章, p. 15)이기 때문에 「孝로서 백성들을 서로 친하고 사랑하게 하고 友愛로서 백성들에게 예법과 順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孝經 p. 37)고 孔子가 말한 이래 儒敎文化圈에서는 從的人間關係가 주가 된 孝가 강조되어 오며 수많은 孝子·孝女の 行蹟이 전설과 詩句, 역사책을 통해 전해내려 왔다. 청소년 교육으로 일찌기 新羅의 國學에서는 孝經과 論語가 필수과목으로 다루어졌고 高麗의 學式으로도 孝經과 論語는 다 같이 1년간 학습하되 누구나 이 둘을 다른 諸經보다 먼저 읽어야 된다고 규정되었다. 李朝시대의 學命으로도 小學을 비롯한 童蒙先習·童蒙要訣·五倫行實圖·鄉飲酒記 등을 읽게 하였고 (尹, 1975), 일반에서는 千字文이나 類合을 읽은 뒤 啓蒙編·童蒙先習·擊蒙要訣·明心寶鑑 중에서 골라 읽은 다음에 十八史略·通鑑·小學 등을 읽고 다음에 七書로 들어가게 되어 (李, 1971) 「韓國精神은 바로 孝의 정신」(尹, 1975)이라고 까지 하고 있다.

孔子에 있어서의 孝도 그가 意識上에서 말한 孝와 그의 無意識에서 가진 의 미는 다를 수도 있다는 研究報告 (趙, 1975)가 있어 오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와 祖上에게 孝子 孝女로 부각된 人物들은 어떤 特徵을 가졌으며 이들의 孝行은 精神分析學의 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관해서 알아 보려는 試圖가 이 논문의 목적이다.

資料와 方法

연구 자료로서 著者は 근래보다는 더 오래부터 알려졌거나 기록된 예로서 여러 세대를 거둬해 이야기 되어 온 孝子·孝女の 逸話들을 사용하였다. 이는 옛시대의 인물이 그만큼 더 우리를 洗腦하여 온 문화적 유산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자료로서 사용된 것은 三國遺事(一然, 年代未詳)에서 나오는 主人公들인 ① 眞定法師, ② 어느 貧女, ③ 金大成, ④ 向得, ⑤ 孫順의 5 逸話, 주로 中國의 事例를 옮긴 孝行錄(李齊賢, 年代未詳)의 주인공인 ① 舜임금, ② 老萊子, ③ 郭巨, ④ 董永, ⑤ 閔損, ⑥ 曾子, ⑦ 孟宗, ⑧ 劉殷, ⑨ 王祥, ⑩ 姜詩夫婦, ⑪ 蔡順, ⑫ 陸績, ⑬ 王武子の 妻, ⑭ 曹娥, ⑮ 丁蘭, ⑯ 元覺, ⑰ 田眞, ⑱ 魯姑, ⑲ 趙孝宗, ⑳ 鮑山, ㉑ 韓伯俞, ㉒ 楊香, ㉓ 周文王, ㉔ 漢文帝, ㉕ 仲由(子路), ㉖ 黃香, ㉗ 淳緄榮, ㉘ 孟景休, ㉙ 古初, ㉚ 王震, ㉛ 文讓兄弟, ㉜ 薛包, ㉝ 庚袞(유근), ㉞ 申屠蟠, ㉟ 王崇, ㊱ 王陽, ㊲ 吳猛, ㊳ 鄧攸, ㊴ 茅容, ㊵ 何子平, ㊶ 朱壽昌, ㊷ 司馬光, ㊸ 陳氏夫人, ㊹ 長孫夫人 등의 44 逸話, 같은 李齊賢의 孝行錄인데 擊蒙要訣(李珣, 年代未詳)의 喪制章에 붙어 인쇄된 ① 劉明達, ② 琰子, ③ 王少玄, ④ 郭世通, ⑤ 鮑永, ⑥ 江革의 6 逸話, 明心寶鑑新釋(著者未詳, 年代未詳)에 있는 ① 都氏少年, ② 李朝 仁宗王, ③ 黃守身의 3 逸話, 沈清傳(著者未詳, 年代未詳)의 沈清, 李朝實錄을 쉽게 풀이한 「이야기實錄」(劉鳳榮, 1976)에 나오는 ① 命之, ② 朴琦, ③ 河永澄, ④ 金允孫의 4 逸話로 모두 63개의 逸話사예였다.

이 63逸話 각각을 著者は 任意로 主人公의 性別과 家

* 본논문은 1975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로 이루어 졌음.

〈接受: 1976年 3月 15日〉

族內의 位置, 年齡, 結婚如否, 出生序列, 社會經濟階級, 孝의 對象이 되는 人物의 家族內 位置, 主人公이 처한 상황, 孝對象人物이 처한 상황, 孝行爲의 정도, 孝行위에 오는 結果등의 10項目으로 나누어, 項目別로 集計를 한뒤 이를 敘述的 精神科學의 立場에서 一次의 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結果에 나타난 이들 孝子의 특징을 몇몇 基本 儒學書에서 孝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과 비교하여 보았고 다시 方向을 달리하여 이를 正統精神分析學說을 적용하여 綜合分析 하였다.

그러나 본 자료로 사용한 孝行譚은 대개가 漢詩 몇 줄로 된 것이 많다. 또 여기에 漢詩의 譯者 자신이 그 나름대로 약간의 수정이나 첨가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 고로 이것으로 그 주인공의 정신분석이 가능하다고는 물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 존재했었는지, 실제로 그런 환경이었는지, 그런 행동을 실제로 그가 했는가 하는데도 의문이 갈 수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事例에 대한 眞僞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그랬다는 가정 밑에서 이것이 여러 代를 거듭해가며 임혀지고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思考方式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로서 著者が 留意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著者は 여기서 이 모든 孝자와 孝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하나의 集團으로 보고 각 項目別의 集計를 통해 가능한 共通分母가 될만한 것을 찾은 뒤 그것들을 綜合하여 「孝」라는 말에 연관되어 떠오르는 어떤 空想的 典型的인 孝子像을 구성해 보려 하였다. 逸話 하나 하나마다 各項目에 해당된 사항이 언급되어 있을 때는 그 명기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著者만으로도 쉽게 推定이 가능한 것은 그 推定된 내용을 명기된 사실이 있는 群에 편입시켜 같은 것으로 集計에서 취급하였다. 그러나 推定이 빗나갈 우려가 있는 것은 그대로 「不明」이란 조목에 같이 넣어 취급함으로써 著者 나름대로 客觀性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것이 특히 年齡과 結婚如否의 項目에서 많았음과 그것은 數値는 集計이지 統計學에서 의미하는 統計가 아님은 아울러 밝혀둔다.

끝으로 明記한 것은 이 논문은 倫理·宗教·歷史·政治的인 面은 전혀 고려치 않은 순수한 精神科學의 立場에서 쓰여졌다는 것이다. 이 논문 중간 부분에서 특히 많이 引用한 儒學書와 修身書의 句節 또한 精神科學的인 立場에서의 이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거듭 明記하는 바이다.

結果 및 解釋

(1) 主人公의 性別과 家族內 位置

모두 63예 중에서 아들이 44예(70%), 兄이 2예, 兄弟相互間이 2예, 弟가 1예, 며느리가 4예(6%), 딸이 6예(10%), 아들과 며느리가 5예(8%)였다. 性別로는 男性이 48예(76%), 女性이 10예(16%), 男女混合이 5예(8%)였다. 따라서 男性과 아들이 각각 압도적 다수였다.

이들 중 兄·弟·兄弟相互間이란 다른아닌 兄弟간의 友愛도 「효행담」에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童蒙先習 序文에서 「五倫中 孝弟가 첫째이다」(林, 年代未詳)라고 한 말도 있듯이 孝와 형제간의 友愛는 같이 묶어 취급해왔음을 실제로 말해주고 있다.

(2) 主人公의 年齡

63예중 年齡이 明記되었거나 推定이 쉽게 되었던 것이 46예였다. 이 중 兒童期가 2예(4%), 靑少年期가 19예(41%), 靑年期가 20예(43%), 中年期가 3예(7%), 老年期가 2예(5%)였다. 따라서 孝자·孝녀는 靑少年기와 靑년기에 그 84%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느 모로는 당연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어린 이는 부모나 윗사람에게 의존적(dependent)이라는 점, 靑少年도 정신적으로는 거의가 思春期에 해당하여 依存心과 獨立心과의 갈등이 심한 시기에 있다는 점을 (Blos, 1962) 감안할 때 이 2期의 합인 45%의 예에서 의존성(dependency)의 문제가 얽혀 있어 主體性을 가진 뒤에 행하는 孝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약 半의 가능성에서 依存性과 그 依存對象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점(fear)에서 나오는 행동이 때로는 孝行으로 부각되었을지 모른다고 하겠다.

(3) 主人公의 結婚如否

63예중 결혼여부가 명기되어 있거나 推定이 쉬운 경우는 43예였고, 이 가운데 未婚이 29예(67%), 既婚은 2예에 과부를 포함하여 14예(37%)였다. 不明한 20예중 연령과 당시의 직위와 문화풍토로 보아 결혼했을 것이 거의 확실한 5명의 靑年期 以後 주인공을 가산한다면 이들 전체에서 未婚이 60%, 既婚이 40%가 된다. 즉 미혼이 역시 많은데 이는 앞서 性別 항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배우자가 있으면 효행이 어렵다는 뜻을 내포한다 하겠다.

(4) 主人公의 出生序列

63예중 불명확한 것이 38예, 며느리가 되어 의미가 없는 것이 4예가 있어 出生序列이 확실하게 된것은 단지 21예였다. 이들 가운데 長男·長女가 8예(사실상 모두가 장남이었다), 獨子·獨女가 8예, 막내 또는 형제간에서 동생으로 기재된 것이 2예, 형제 상호간이 2예

기타 1대(4형제중 3째)로 되어 獨子·獨女の 수가 長男의 경우와 같았다, 그러나 장남의 경우 그 半인 4에서 繼母와 이복동생이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어 장남이라 하여도 그 親父母에게는 독자였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아들·외딸인 경우가 장남·장녀보다 많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외아들·외딸에게는 더욱 依存心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Kolb, 1973) 효자·효녀 21예중 12예인 55%에서 이런 문제를 내포한다고도 보겠다.

(5) 主人公의 社會經濟階級

著者の 意로 편이상 上·中·下의 3群으로 나누었다. 下流는 가난하다고 명기되어 있는 예가 대부분을 점하고 추정된 예는 소수에서였다. 上流는 벼슬을 했든가 학자였던가 넉넉한 것으로 기재된 예를 말하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주위 文脈으로 보아 빈곤하지는 않은 예를 中流로 하였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예가 63예중 44예였고, 이 가운데 上 15예(34%), 中 5예(16%), 下 22예(50%)를 각각 점하였다. 이것만으로는 일견 下流계급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作爲의으로 下流層을 많이 부각시켰는지도 모르겠으나 당시의 사회구조상 하류계급에 속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므로 효자·효녀의 頻度上的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없겠다.

(6) 孝의 對象(人物)

1예에서 老母와 弟를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있어 집계에서는 이것을 2개의 對象으로 나누어 각각 해당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모두가 64예로 된다. 이들 가운데에 父 15예(23%), 母 27예(42%), 父母가 같이 된 경우가 7예(11%), 父·繼母가 2예, 繼母 단독이 4예, 兄 1예, 弟 4예, 兄弟상호간 1예, 시어머니 3예로 되어 있다.

母가 가장 많고, 특히 父母를 비교할 때 母가 압도적이었다. 父母가 함께 孝의 對象으로 나온 경우는 母 단독으로 기재된 경우의 25%, 父 단독인 경우의 50% 정도의 비례로 적었다. 즉 효의 대상도 單數인 경우(이중에 얼마가 홀아버지 홀어머니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는 孤獨한 경우가 자식에게서 孝를 받을 가능성이 많음을 보인다. 심지어 繼母도 과부로서의 경우 4예에 비해 父·繼母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2예 뿐이다. 兄弟간의 관계를 볼 때 弟가 대상이 되는 예가 4예인데 비해 兄은 1예가 된다. 따라서 友愛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7) 主人公이 處한 狀況

주인공이 孝行이라고 간주되는 행동을 하기 직전 또는 하는 순간에 그가 처한 상황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도둑떼나 호랑이를 만난다는 것 같은 급한 生命의 危機(acute life-threatening situation)를 만난 경우를 A群, 兇年·避亂·洪水·傳染病 같은 만성적 生命의 위기(chronic life-threatening situation)에 처한 경우를 B群, 얼마전 孝의 對象을 死別거나 離別(loss of love objects) 했다면 C群, 내쫓기거나(rejection) 다른 가족을 死別·離別(other losses)한 경우를 D群 그리고 이상과 같은 生命의 위기나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고 단순한 日常生活속에 있는 때를 E群으로 하였다. 결과는 A 7예(10%), B 10예(16%), C 8예(13%), D 7예(11%), E 31예(49%)였다. 즉 효행이 있기 직전 주인공은 日常生活(E)을 하던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이를 위협과 고통을 받던 경우의 총계(A+B+C+D)와 비교해 보면 각 49%와 51%를 보임으로써 환경상에는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A·B·C·D群도 서로가 10~16%의 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중 어느 것에 처해 있든지 위기와 충격이 急性으로 오든지 慢性으로 오든지 간에 差異가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孝行은 대체로 하나의 一貫性이 있는 行動임을 시사한다.

(8) 孝의 對象(人物)이 처한 狀況

이미 死亡했거나 離別 또는 行方不明이 된 경우를 A群, 天災地變·亂中·도둑떼나 호랑이와의 조우·病席 영양불량·投獄 같은 生命의 危機를 맞은 경우를 B群, 老妄을 부리거나 無理한 임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C群, 건강하거나 아니면 盲人같은 不具라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 적응이 되어 있는 경우를 D群, 주인공을 오히려 迫害할 때를 E群으로 하여 5가지 狀況으로 나누어 보았다. 결과는 A 13예(21%), B 21예(33%), C 3예(5%), D 22예(35%), E 4예(6%)였다.

즉 건강한 孝의 對象을 육체적으로 더욱 쾌락하고 정신적으로 더욱 평온하게 하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될 수 있는 D群이 35%로 가장 많았고, 孝對象이 위기에 처한 경우가 효행의 동기가 되는 경우인 B群이 33%로 前者와 비슷하게 높았다.

특이한 것은 A群이 21%가 된 것으로서 이 경우는 대부분이 死亡直後였다. 즉 효 대상의 급작한 상실에서 오는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애도(mourning)나 우울(depression) 상태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대

상을 향해 가졌던 주인공의 兩價性(ambivalence)의 存在를 말해주고 있다(Freud, 1917).

(9) 孝行의 程度

주인공 자신의 생명을 걸거나 傷害를 무릅쓰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A群, 자식의 생명을 걸거나 상해를 무릅쓰는 행동의 경우를 B群, 자신의 몸을 팔거나 극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를 C群, 벼슬이나 配偶者 같은 자신의 정신적 행복과 육체적 만족을 포기하는 경우를 D群, 일상생활에 결드린 精誠만이 필요한 경우를 E群, 孝對象을 오히려 저버리는 경우를 F群으로 하여 6가지로 나누어 보니 A가 15예(24%), B 5예(8%), C 9예(14%), D 6예(9%), E 27예(43%), F 1예이었다. 따라서 E群이 단위 별로 가장 많으나, A·B·C·D의 합이 모두 35예(55%)로서 희생하는 경우가 정성만을 드린 것(43%)보다 많다.

특히 (7)項에서 주인공이 急慢性의 생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A+B)이 전체의 24%이었고, (8)項에서 孝 대상이 생명의 위기에 처한 율이 33%였는데 反해 本項에서는 孝행으로 자기와 자식을 크게 희생하는 경우(A+B+C+D)가 도합 55%나 된다. 즉 주인공은 자신을 희생하는 쪽으로 필요 이상 행동한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孝行의 被虐性(masochism)을 볼 수 있다.

그리고 (8)項에서 孝 대상을 사별·이별한 19예를 따로 뽑아 그 孝行의 정도를 本項의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크게 희생하는 경우(A+B+C+D)가 70%가 되어 本項의 모든 예에서 55%가 된 것보다 크다.

(10) 孝行뒤의 報償

희생하려던 대상(대개는 주인공)도 살고 期待밖으로 돈·벼슬·표창·곡식 같은 큰 보상을 받은 경우를 A群, 상대방이 감동했거나 무슨 기적 같은 것으로 기대했던 정도의 보상을 받은 경우를 B群, 희생하려던 대상은 죽기는 죽었으나 기대했던 보상을 받은 경우를 C群, 기대와는 반대 결과를 가져 온 경우를 D群, 보상이나 결과에 언급이 없는 예를 E群으로 하여 보면 E群이 9예가 된다. 나머지 54예중에서 A가 21예(40%), B가 29예(54%), C 2예(3.5%), D 2예(3.5%)로서 이는 희생대상도 살며 보상도 크던 적던 받는 A·B群의 합이 94%가 됨을 말한다.

위와 같은 10가지 항목에서 각 항목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 하나만을 뽑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架空의·典型的의 孝子(女)像과 그 孝를 엮어 놓아 보기로 한다.

우선 주인공의 性別과 가족내 위치는 아들, 연령은

靑年期, 결혼관계는 未婚, 출생서열에서는 獨子, 사회경제계급에서는 下流, 孝의 대상되는 인물은 홀어머니,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평온한 일상생활이 아닌 苦痛과 危機, 孝 대상의 상태는 健康하며 孝행의 동기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평안감을 좀 더 주기 위하여 孝행이란 정성만이 아닌 주인공 자신의 犧牲을 동반한 행동, 그리고 孝행 뒤에는 대개 報償이 있는 것으로 集計된다. 이를 좀 더 다듬은 文章으로 옮긴다면 「가난한 집 외아들 靑年이 자신은 고통과 위기에 처해 있지만 건강한 홀어머니를 좀 더 편안히 해드리려고 자신을 희생하면 그 보상을 크던 작던 받게 되는 것」이 된다.

다음에는 여기에서 副隨의으로 발견된 특징들을 다시 정리해보기로 하면 첫째, 孝행의 주인공은 어느 한 個人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기·靑소년기의 외아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게는 孤獨(isolation)·過剩保護(overprotection)·依存性(dependency)의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未婚인 주인공이 많은 것으로 보아 既婚子女는 아무래도 배우자에게 쏟을 에너지가 많아 孝에는 적격자가 아님을 시사한다. 넷째, 당시의 사회구조에 맞게 주인공들이 사회경제계층 모두에 두루 분포되어 있어 孝行은 사회적 지위나 貧富같은 조건에 대체로 지배받지 않음을 알려준다. 다섯째, 孝의 대상에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한 個人이 되는 수가 많으니 要는 孝란 個人과 個人間의 인간관계임을 말한다. 여섯째, 孝의 대상 인물로는 어머니가 압도적이며 주인공은 아들이 압도적이어서 이들 관계에는 性的인 面(sexuality)도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며 따라서 「에드프스·콕프릭스」같은 前生殖器的的(pregenital) 精神性的 成熟的 면에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일곱째, 孝행은 그 행위의 직전에 처했던 상황과 사건중 어느 특정한 요소에 좌우되어 생겨나는 것이 아닌듯 하다는 점이다. 즉 환경적(situational)이거나 反應的(reactive)인 것이 아니라 一貫性이 있는 것으로서 한 걸음 비약해 생각한다면 할 때 주인공의 性格(character)에 起因하는 것일 수가 많다는 점이다.

「孝子」의 孝와 儒家에서의 孝

본 논문의 자료로 삼은 孝행담 사례의 내용을 우리의 祖上이 靑소년시절에 읽었던 儒家의 修身書에서 나오는 孝의 내용과 비교할 때 우리는 混線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책의 어떤 곳에 되는 이들 「孝

자」의 효행과 같은 것을 극구 강조했고 다른 곳에서는 같은 효행도 「不孝」라고까지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著者は 이렇게 혼신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들을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언급해 보기로 한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家族關係에서 누구를 優先으로 여기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효도와 형제간 우애는 仁의 근본이다」(論語 學而篇 2章, p. 15)의 구절이 있어 父母와 兄 또는 弟를 優先한다는 말이 있고, 「莊子が 말하기를 형제란 手足과 같고 夫婦란 衣服과 같으니 의복이 찢어졌을 때는 다시 새로 만들어 입을 수도 있으나 수족이 한번 끊기면 다시 잇기가 어렵다」(明心寶鑑 安義篇, p. 249)는 말은 夫婦관계보다 兄弟관계를 혈연이라는 면에서 우선으로 하였다. 다음에 妻子를 父母와 동등히 본 것으로 같은 책에 「제 妻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父母를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의 효도는 그야말로 더 이를 나위 없이 극진한 것이 될 것이고...」(明心寶鑑 存心篇 p. 111)라는 구절과 「妻子만 사랑하여 父母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은 不孝의 하나다」(孟子 離婁篇下 30章 p. 215)란 말이 있다. 또 「孔子가 말하기를 늙은이를 버리고 어린이만 취하는 것은 집안에 상스럽지 못한 것이다...」(孔子家語 9卷 41章 正論解 p. 324)라고 한 것과 「兄弟의 자식은 내 자식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을 마땅히 내 자식과 똑같이 할 것이고...」(擊蒙要訣 居家章 p. 112)란 말이 있어 부모와 자식, 조카와 자식을 同格에 놓은 구절이 있다. 그러나 以上과는 달리 夫婦關係를 우선으로 정의한 부분도 있으니 「孔子가 말하기를 君子의 생활칙약은 명법한 夫婦生活에서 발달된다...」(中庸 倫理 和論 12章, p. 446)는 것과 「夫婦가 있는 다음에 父子가 있으니 夫婦는 사람의 도리의 시초이다」(啓蒙篇 p. 122)라는 말과 「顏氏家訓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이 있은 뒤에 夫婦가 있고 夫婦가 있은 뒤에 父子가 있고 父子가 있은 뒤에 兄弟가 있나니...」(明心寶鑑 存心篇, p. 240)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따라서 老母를 위해 자식을 죽이려던 郭巨와 孫順, 난리에 쫓기는 중에 친자식은 버리고 죽은 아우의 아들탄을 데리고 도망치다 죽은 鄴攸 부부, 老母를 위하여 자식을 판 劉明達 부부, 老父母 봉양에 지장이 있어 개를 꾸짖는 아내를 내쫓은 鮑永 등의 효행은 일방적인 편협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으며, 혹시 다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 孝라는 사회가 용납하는 것으로 美化 또는 昇華(sublimation)의 과정을 밟은 것일 수도 있겠다.

둘째, 祖上和 父母의 喪禮에 관한 것도 애매한 점이 많다. 孝經(p. 30~36)에서는 諸侯·卿大夫·선비의 孝를 정의하면서 社稷과 宗廟를 지키고 祭祀를 지내는 것을 포함시켰고, 論語에는 「曾子が 말하기를 喪禮를 극진히 하는 祭禮를 정성껏 모시면 民心도 따라 厚德한 곳으로 돌아오리라」(學而篇 9章, p. 16)고 하였으며, 中庸에서도 「孔子가 말하기를 舜임금은 위대한 효자이다. 종묘의 제사를 받들어 대대로 자손을 보존하였다」(倫理 和論 17章, p. 450)고 하였다. 또 「孔子가 말하기를 불효한 자식은 어질지 못하는데서 생기게 마련이고 어질지 못하다는 것은 원래 초상치르고 제사 지내는 데에서 뚜렷이 생겨나는 것이다. 喪祭라는 禮를 밝히는 것은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孔子家語 7卷 30章 五刑解, p. 289)라 하여 喪禮를 지킴이 자식의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같은 孔子家語를 보면 「子路가 孔子에게 “가난한 것이 슬픕니다. 父母 생존시에는 봉양을 제대로 못했고 돌아가셔도 禮대로 초상을 치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 孔子가 말하되 “살아서는 가난해도 즐거워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 효도이며 죽어서는 수족과 형제만 거두어 가지고 형편에 따라 장사지내는데 棺만 쓰고 槨을 쓰지 못한다 해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을 禮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가난이 슬프냐?”(10卷 42章 曲禮子貢問, p. 341)한 구절이 있고, 또 「子游가 말하기를 부모의 居喪에는 슬퍼하는데 그칠 것이지 “너무 外飾을 말아야 한다」(論語 子張篇 14章 p. 107)는 것이 있으며 孟子 또한 「나는 制度에도 맞고 財力도 있었으니 좋은 棺을 쓸수가 있었오. 君子는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부모상을 절약하지는 않는다」(孟子 公孫孫範 7章, p. 190)라고 하였던 것을 보면 이는 喪禮는 喪主의 사정에 맞게 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前述한 孝行例중 母喪을 당하여 벼슬을 내놓고 집에 와서 闋年으로 장사를 8년이나 못지냈던 何子平등의 행위는 치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상을 당하여 과도한 슬픔이나 그 때문에 오는 被虐의 행위와 결과를 극히 경계한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孔子의 아들 伯魚가 어머니 초상을 당하여 3년이 되었는데도 울고 있으니 孔子가 이를 보고 “너무 지나친 것도 禮가 아니다”라고 하였다」(孔子家語 10卷 42章 曲禮子貢問, p. 343)는 말과 같은 章(p. 352)에는 「孔子가 말하기를 3年喪에 있어서 너무 슬퍼하기만 하다가 병이 생기는 것, 먹지 않고 파리해져 병으로 죽는데 까지 이르는 것은 君子는 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또 孝經(p. 98)에서도 「3일만 굶는다는 것

은 더 이상 건강을 해쳐 死者가 生者를 해치지 않게 함이며, 居喪을 3년함도 백성에게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李珣는 과도하게 슬퍼하여 병이 생기거나 자기 생명을 잃는 자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不孝」(擊蒙要訣 喪制章 p. 83)라고 해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未熟(immature)하고 依存的(dependent)性格을 가진 사람에게서 정상으로 있을 수 있는 哀悼의 범위를 넘어 우울(depression)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孝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효행담 사례중, 아버지가 흉수로 강물에 빠져죽자 강기슭에서 17일을 통곡한 뒤 강물에 자신의 몸도 던진 曹娥의 예, 아버지 초상중에 火災를 당해 달리는 군중을 뿌리치고 들어가 棺을 꺼내다가 미처 못꺼내고 관위에 그저 엎드려 있었던 古初의 예, 아버가 억울하게 죽자 종신토록 과거에 응시도 않고 묘역에 살며 애통한 王裒의 예에서는 도가 지나친 것이 李珣가 말한 不孝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겠다.

넷째, 부모가 不當하거나 無理한 要求와 行動을 보였을 때 자식은 어떻게 反應해야 하는가에서 나오는 混線을 들겠다. 「부모를 섬기는 자는 한가지 일이나 한가지 행동이라도 감히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부모에게 품한 뒤에 행하니... 옛사람은 하루 동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三公과도 바꾸지 않았다」(擊蒙要訣 事親章, p. 67-69)는 말과 「부모가 미워하면 두려워 하면서도 원망하지 말며, 부모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간하되 거슬리지 말며 세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거든 울면서 따른다. 부모가 노하여 때려 피가 나더라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董蒙先習, p. 38)는 말은 부모의 말이 至上命令임을 강조한 듯하다.

반면 孝經(p. 92)에는 이런 말이 있다. 「어느날 曾子가 孔子에게 “아버지의 명령만 좇기만 하는 것이 가히 효도라 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大夫는 다투는 신하 세사람을 두면 비록 자신에 道가 없더라도 자기 집을 잃지 않을 것이고..... 아버에게 다투는 자식이 있다면 결코 不義에 빠지지 않지 때문에 만일 아버가 불의한 일을 했을 때는 자식으로서 다투지 않을 수 없고 신하로서는 임금에게 다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不義한 일을 당하면 다투어야 하는 것이니, 아버의 명령만 좇는다 하여 어찌 효도이겠느냐.”」 孔子家語에서는 또 이런 일화가 있다. 「曾子가 참외밭을 매다가 실수하여 참외 뿌리를 캐니 아버지 曾皙이 노하여 큰 막대기로 때리니 증자가 까부러졌다가 깨어난 뒤 기쁜 표정으로 “아

까 아버지께서 너무 힘을 들여 저를 훈계하셨으니 혹 병환이나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다... 孔子가 이를 듣고 노하여 설명하기를 “옛날 舜임금이 그 아버지를 섬길 때 심부름 시킬 때는 늘 곁에 있었으나 잡아 죽이려 할 때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 작은 때는 그대로 맞고 큰 때 때는 도망쳐 버렸다. 이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惡했다 해도 아버지가 아니라는 죄까지 범하지 않게 함이요 不義에 빠지지 않게 함이다”」(4卷 15章 六本, p. 136-137).

이것을 효행담과 비교해 볼 때, 仁宗의 예에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계모가 건물에 불을 지르자 피해 나갈 기회가 있는데도 굶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王祥의 예에서는 계모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 못하고 凍死할 각오로 강얼음 위에 옷을 벗고 누웠던 것이니 이들은 자신이 죽으므로써 계모에게 不義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주는 것을 희망했었다. 즉 意識的·無意識的 공격성과 복수심의 만족을 위한 이들의 「孝行」은 上記한 孔子가 말하는 孝行은 아닌 것 같다.

다섯째, 어떤면 孔子도 被虐의 行動을 하는 「孝子」의 無意識에 있는 분노와 공격성을 파악이라도 한듯이에 대한 言及이 있다는 것이다. 「세벽부터 저녁까지 손발이 부르르도록 일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자라도 자기 몸을 공경할 줄 모르거나 말을 순하게 할 줄 모르거나 얼굴빛을 기쁘게 가질 줄 모르는 자는 孝자가 아니다」(孔子家語 5卷 22章 困誓, p. 193)라는 말로 孔子는 이를 특히 경계하였다.

以上에서 보면 대개 儒家에서 말하는 孝는 몇가지 중요한 대목에서 一貫性이 없는, 또는 二律背反의인 것(double-bind message)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孝에 관한 限 中庸에서 뜻하는 개념을 가지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精神科醫師로서의 著者의 의견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君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위로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아래로 너무 내려가지도 않은 平凡한 中庸의 原理에서 산다」(中庸 倫理 中論 2章, p. 441)는 구절, 「君子는 자기의 위치에 서서 알맞게 일을 행해야 한다」(中庸 倫理 和論 14章, p. 448)는 것이라든가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孔子家語 1卷 4章 大婚解, p. 39)라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이런 君子의 自我는 健全해야 하고 힘이 있어 超自我와 「이드」에서 오는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겠다.

따라서 孝行譚 事例에서 나오는 많은 「孝子」는 여기서 말하는 君子의 人格構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리고 精神科學의 입장에서 말하는 成熟人格者(matured

person)와도 差異가 있는 인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孝子·孝女傳에 있어서 孝의 分析

著者は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가지고 孝에 있어서 被虐性(masochism)의 문제를 제시하려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인용자료 63예의 상당수가 孝의 對象, 즉 孔子의 말을 빌리면 「사랑과 공경의 대상」(孝經, p. 35)이 되는 人物은 건강한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少數에서 오래전부터 不具 또는 자연적인 老弱 상태에 있는 반면 이들을 위하는 주인공의 孝行은 단순한 精誠만이 아닌 힘든 勞苦나 犧牲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로, 「…繼母가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여 江에 나가 한술만 쉬다가 옷을 벗고 얼음장 위에 누웠던」王祥의 효행은 얼어 죽기를 무릅쓴 희생을 감행한 것이다. 「…盲人이 아버지가 눈물 욕심으로 중에게 공양미 3百石을 시주하겠다고 한 서약을 들고 자기 몸을 뱀사공에게 팔아 바닷물에 몸을 던지」는 沈淸은 아버지의 눈을 떠주기 위해 생명을 희생하였고, 「老母의 밥상에 매달려 맛있는 음식을 빼앗아 먹는 자식을 산채로 매장하려던」郭巨와 孫順의 逸話에서는 老化過程의 어머니의 영양보충을 위해 자식을 殺害하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들 주인공이 被虐의 行動을 보였다는 것에는 異論을 제기할 수 없겠다.

被虐性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고찰에서 Kraft-Ebing은 「신체적 동통속에서 性感을 얻는 것」이라고 被虐性을 정의하면서 순교자나 「싸움터의 병사에 비유할만치 그 감정상태가 회열에 꼭차 있기 때문에 피부저각신경도 효율이 떨어져 동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 동통과 같이 받는 虐待는 단순한 象徵으로만 남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신체감각이 정성적 경험으로 過剩代償(overcompensation)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Podolsky, 1953) 그는 性的인 면만을 강조한 점이 없지 않다. 孝의 주인공이 男性이고 아들이며 그 孝對象이 女性이고 어머니인 경우가 많음은 前述한 바 있기 때문에 性的 被虐性이 중요치 않느냐는 견해는 위험하고 지나친 비약으로서 여기서는 Freud의 分類(Freud, 1924)에 의한 發性的(erotogenic), 女性的(feminine), 道德的(moral) 被虐性 가운데 마지막인 道德的 被虐性이라는 次元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Freud는 처음에(Freud, 1915) 被虐性을 이드(id)속에 속한 그 개인의 攻撃性(aggresiveness) 또는 加虐

性(sadism)이 자신에게로 돌려진 것이라고 보았고 奎에(Freud, 1919) 被虐의 行爲인 自害行爲가 自己保護와 自己維持 또는 번식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데에 착안하여 인간에게는 죽음의 本能(death instinct)이 있지 않느냐는 가설을 세운 뒤 被虐性이야말로 이 죽임의 본능이 발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原因으로 「에디프스·콤플렉스」에서 由來한 罪責感(a sense of guilt)과 處罰을 받고져 하는 欲求(a need for punishment)를, 이때 작용하는 自我의 防禦機制로는 退行(regression), 抑壓(repression), 同一視(identification), 反動形成(reaction formation)을 들었다. 原因으로 去勢恐怖(a fear of castration)를 강조한 그의 견해는 뒤에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一部에서만 적합하다”는 反論과 修正을 겪어오고 있지만, 본 논문 인용자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다.

예로 「黃喜의 아들 守身이 妓生집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자 하루는 黃喜가 그가 들어 오는 때를 기다려 문앞에 나아가 절을 하면서 당황하는 아들에게 내가 너를 자식으로 대해도 듣지 않으니 나를 아비로 알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를 손님의 예로 대접하겠다고 말한 다음부터 守身은 妓生집을 받을 끊던중 어느날 취중에 잘못하여 다시 그 집에 가서 목은 다음날 아침에 놀라 깨어서는 타고온 자기 말(馬)의 목을 베었다」는 孝행담이 있다. 여기에서 보면 守身은 怒한 아버지에게 겁을 먹었던 것이고, 말(馬)은 크고 검붉고 날뛰고 씩씩하다는 의미에서 男性性器를 상징하며, 타고 온 자기 말이란 자신의 性器인 것이요, 그 말을 베었던 것은 자기 性器를 切斷했다는 상징인 것이니 일목요연한 去勢恐怖의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왜 孝行譚의 주인공은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처벌받고져 하는지의 문제는 자못 중요하다. 그것을 Freud가 말하는 前述한 未解決된 에디프스·콤플렉스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이외에 著者は Berliner (Podolsky, 1953)가 被虐性 一般을 分析한 것을 참고로 하여 좀 달리 주인공은 이드(id) 속에 있는 孝對象에 향한 攻撃性을 억제하려는 이유에서 미리 처벌을 받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싶다. 「景行錄에 말하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한번 얼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성품도 역시 한번 방종해지고 보면 다시 본 마음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막으려 하면 반드시 독을 쌓아서 막아야 하고 성품을 바로 잡자면 반드시 禮法으로 억제해야 한다」(明心寶

鑑 戒性篇, p. 113)라고 하였듯이 방종하다는 것을潛在한 攻擊性的 發露라고 보고, 禮란 말을 孝로 바꾸어 놓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攻擊性이 발위되고 나면 孝對象을 잃는 것(loss)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攻擊性을 억제하는 것은 그의 無意識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否定(denial)이라는 自我의 防禦機制가 작용한다고 하겠다.

다음은 주인공이 無意識에 孝의 對象을 向한 攻擊性을 가진 것을 무슨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나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다. 그 첫째의 증거로, 그는 孝對象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사실이다. 「아침·점심·저녁으로 하루에 3번 아버지에게 문안을 꼭 드린」 周 文王의 예, 「벗꽃나무의 벗을 쥐가 먹도록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듣고 밤새 나무를 붙들고 지낸」 王祥의 예, 「뜰에 있던중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찾은」 曾子의 예, 「부모 앞에서 개를 꾸짖는다 하여 아내를 쫓아보낸」 鮑永의 예, 「가난한 살림에서도 老母는 꼭 쌀과 고기로 봉양한」 都氏少年의 예같은 그 至誠과 熱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들이 속에서 말하는 “이렇게 제가 애쓰는데 그래 저를 사랑하지 않고 배기실 수 있습니까?”하는 식의 소리를 뒤이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들이 가진 積極性和 攻擊性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증거는 주인공이 노고와 희생을 함으로써, 예로 「百里길을 쌀을 저서 부모를 봉양한」 仲由와 「老母를 위해 자식을 산채로 물으려던」 郭巨를 들때 한편으로는 마치 그가 “자, 저는 이 지경입니다. 당신도 인간이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 아닙니까?”라든가 “당신도 후회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라면서 덤비는 마음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 즉 孝對象에게 이런 心的 부담을 안기므로써 그는 상대를 처벌하는 복수를 하는 것과도 같다. 셋째는 주인공의 攻擊性이 완전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家財도구 하나없는 가난한 살림에서 매일 매일 품을 팔아 봉양하던 老母에게 “저는 佛門에 入道할까 하는데 효도를 한 뒤에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眞正의 예인데 이를 老母의 처지에서는 「효도 때문에 佛門에 못들어 간다」 즉 「어머니가 살아 있으니 차마 못하겠다」고 해석되기가 십상으로서 그 말이 의미하는 老母를 향한 공격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세가지 점에서 볼 때 주인공은 孝對象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만큼이나 對象을 구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보겠고, 어느 면으로는 응징받고 싶은 욕구보다도 이렇게 孝對象을 응징하고 싶은 욕구가 더 인상적이다. 극단적인 예로 역시 郭巨

와 孫順의 경우를 들어볼 때, 만약 이들이 자식을 죽였다면 뒤에 이를 깨달은 그들 老母의 心情은 어떠했으랴! 그런 다음에도 계속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겠다고 할 老母가 과연 어찌 있으랴! 바로 여기에 주인공의 無意識에 숨은 분노와 공격성이 있겠다.

다음은 주인공의 이러한 攻擊性은 무슨 까닭에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첫째의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孝對象人物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예로 王祥의 繼母는 「추운 겨울에 잉어를」, 劉殷의 老母는 「추운 겨울에 미나리를」 먹고 싶다고 하였다. 둘째, 孝對象이 주인공을 직접 迫害하였다는 것이다. 예로, 「父·繼母·異腹동생이 공모하여 몇번 인가를 죽이려 했던」 舜이 있고, 「父·繼母가 같이 내쫓아버린」 薛包가 있다. 셋째, 孝對象이 주인공에게 향한 無意識의 攻擊性을 들어낸 경우에 그 반응으로 온다는 것이다. 예로, 같은 眞正法師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 어머니가 남은 단 하나의 家財道具인 다리 부러진 솔을 중에게 주어 버렸기 때문에 眞正은 할 수 없이 응이술에 밥을 끓였었다. 넷째 많은 예에서 주인공은 가난하였으니 어린 그들은 그 책임을 들어 부모를 원망하였을 것이다. 다섯째, 父母가 盲人·不具·病弱에 있는 상태가 많아 주인공은 遺傳에 대한 공포와 對人關係에서의 劣等感에 시달렸을 것이다. 여섯째, 많은 예에서 주인공의 父母가 死亡하였다. 成人이라도 이런 죽음에 부닥치면 遺棄당했다는 심정(a feeling of abandonment)이 無意識에서 생겼을 터인데 하물며 兒童期와 靑少年期의 주인공에서랴. 또한 父母의 病席과 臨終前에 高潮되었을 離別不安(separation anxiety)도 어린이의 분노를 형성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Freedman &, Kaplan, 1967)는 사실도 있다. 일곱째,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되는 이것은 즉 大小便을 가리는데서와 기타 紀律을 세워 주려는 의도에서 아동기 발달 과정에서 있었던 父母의 응징 행위이다. 그리고 이상 열거한 사항으로 보아 父母 자신들도 不安정한 性格의 소유자가 많았을 것이니 주인공을 싫어하고 귀찮아 하거나 냉대하고 미워하였을 것이다. 要는 父母 또한 兩價性(ambivalence)을 갖고 주인공을 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어린 시절 사랑의 對象(love object)이 되는 부모가 자기를 迫害할 때 어린이는 처음에 이를 感知 못하지만 뒤에 가서 이것을 알만한 때가 와도 살려는 욕망과 자기 생명을 좌우하는 그 對象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알면서도 이런 迫害를 感知하는 자체를 抑壓(repress)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否定(denial)의

현상이다. 여기에서의 주인공도 口腔期의 어린이로서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는 對象을 舍入(introject)하였고, 고통을 사랑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對象人物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가 받는 冷待나 구박을 리비도化(libidinization)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孝行으로 나타나는 주인공의 被虐性은 그의 리비도(libido)에 반영된 孝對象의 加虐性(sadism)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同一視(identification)나 疇박자와의 同一視(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Freud, A., 1936)라는 방어기제가 作動된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孝子·孝女傳에 나오는 典型的인 「孝子」란 대체로 나약한 自我(weak ego)와 依存的(dependent)인 성격울 지닌데다가 口腔期水準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특히 兩價感情을 갖고 그를 대하는 對象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인간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겠다. 이들에게는 孝란 自我機能의 一部分으로서 本能에서 오는 갈등(instinctual conflict)에 대항하는 防禦機制이기도 하다. 따라서 著者は 이들은 대체로 性格神經症(character neurosis)의 범주에 속하며 이들의 孝란 病的 方法으로 父母에게 사랑을 주는 對人關係의 障礙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의 假說을 提示하는 바이다.

結 論

(1) 著者は 三國遺事·李齊賢의 孝行錄·明心寶鑑·沈清傳·李朝實錄에 기재된 孝行錄 63例를 分析하여 共通點으로 생각되는 項目를 서로 묶어 어떤 架空的·典型的인 孝子(女)像을 세웠는데, 그 主人公을 正統精神分析學派의 學說에 適用하여 分析하였다.

(2) 典型的인 孝子は 「가난한 집 외아들이 自身은 苦痛과 危機에 처해 있건만 健康한 할머니를 좀 더 편단히 해드리기 위해 自己 自身을 犧牲하는 行動을 함으로써 報償을 받게되는 人間」으로 綜合되었다.

(3) 孝子が 보이는 孝誠의 特徵은 道德的 被虐性에 있었고, 이들의 孝行은 다시 性格神經症의 症狀으로서 그리고 이들의 孝는 病的 方法으로 사랑을 주는 對人關係(母子關係) 障礙의 하나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假說에 도달하였다.

(4) 이들의 孝란 그에 향한 兩價感情을 가진 孝對象에게서 오는 加虐性과 그의 「이드」에서 오는 攻撃性에 對抗하는 自我의 防禦機制이며, 이에는 抑壓·否定·

舍入·同一視·反動形成·超自我形成·「리비도」化·昇華가 作動되고 있다.

—ABSTRACT—

A Psychoanalytic Study on "Hsiao" (filiar piety) in Oriental Legends of Filiar Children

Doo-Young Cho

Dep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After collecting data of 10 items (sex, age, marriage history, birth order, socioeconomic condition, object of filiar piety, situation the child faced, situation the object faced, behavior of filiar piety and the results) from 63 oriental legends of filiar children, and artificially building the image of typical hero using the most prevalent fact of those items, the author tried to analyse his personality and behavior pattern.

2. The image of typical hero could be described as "a male individual, born as the only child in a poor family, in his puberty or young adulthood, trying to provide a better life for his widowed healthy mother by sacrificing his own well-being while he himself has already been suffering from physical and emotional hardships, and who would finally get various compensations beyond his original wishes."

3. The characteristic of his behavior of filiar piety could be said as moral masochism, interpreted as manifesting symptoms of a character neurosis, and as a disturbance of interpersonal (mother-child) relations, a pathological way of loving.

참 고 문 헌

- 朴世茂(外): 童蒙先習·啓蒙篇(外)(年代未詳·李錫浩譯), 4版, 乙酉文化社, 서울, 1974.
- 劉鳳榮: 이야기 實錄, 577回, 韓國日報, 1976.
- 尹聖範(編): 現代와 孝道. 初版. 乙酉文化社 서울

- 58 & p. 93, 1975.
- 李錫浩：1)의 紹介文中, p. 3.
- 李珥：學蒙要訣(年代未詳·李民樹譯). 4版, 乙酉文化社, 서울 1975.
- 李齊賢：孝行錄(年代未詳·李民樹譯). 孝經(外). 4版 乙酉文化社, 서울 p. 119-230, 1973.
- 一然：三國遺事(年代未詳·李民樹譯). 初版, 乙酉文化社, 서울 p. 39-402, 1975.
- 趙斗英：孔子에 있어서의 孝에 대한 精神分析學的 研究, 神經精神醫學 14:131-139, 1975.
- 著者未詳：孔子家語(年代未詳·李民樹譯). 初版, 乙酉文化社, 서울 1974.
- 著者未詳：論語(年代未詳·愼弦重譯). 初版, 青羽出版社, 서울 1946.
- 著者未詳：孟子·中庸(年代未詳·金敬琢譯). 再版, 光文出版社, 서울 1965.
- 著者未詳：明心寶鑑新釋(年代未詳·李民樹譯). 11版 乙酉文化社, 서울 1975.
- 著者未詳：沈清傳, 韓國古典小說全集, 4卷, 希望出版社, 서울 1965.
- 著者未詳：孝經(外)(年代未詳·李民樹譯). 4版, 乙酉文化社, 서울 1973.
- Blos, P.: *On adolescence—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1962), *Second edition, The Free Press, N.Y., 1966.*
- Freedman, A. & Kaplan, H. (Ed):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First edition, W. & W. Comp., Baltimore, p. 1395, 1967.*
- Freud, A.: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 (1936), *Revised edition, I.U.P., N.Y., p. 109, 1966.*
- Freud, S.: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1915), *English st. ed. (8th ed.), XIV, The Hogarth Press, London, p. 111-140, 1973.*
- Freud, S.: *Mourning and melancholia* (1917), *Eng. st. ed. (8th ed.), XIV, The Hogarth Press, London, p. 243-258, 1973.*
- Freud, S.: *A child is being beaten* (1919), *English st. ed. (8th ed.), XVII, The Hogarth Press, London, p. 175-204, 1973.*
- Freud, S.: *Economic problem of masochism* (1924), *English st. ed. (8th ed.), XIX, The Hogarth Press, London, p. 159-170, 1973.*
- Kolb, L.: *Modern Clinical psychiatry, 8th ed., Saunders, p. 57, 1973.*
- Podolsky, E. (ed): *Encyclopedia of aberrations* (1953), *First paperbound ed., The Citadel Press, N.Y., p. 328-334, 1965.*